



포장문화의 신기원을 여는 선두기업 성장 자신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또 한번의 도약 기대

21세기, 새천년, 밀레니엄...

글자는 달라도 모두 60여일 남짓 남은 2천년을 의미하는, 우리 주변에 흔한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을 필두로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는 포장업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81년 안양에서 신영 화성공업(주)으로 출발해 (주)신농이라는 사명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자리매김한 (주)아이팩의 상

호는 남다른 의지를 담고 있다.

‘International Printing & Packaging!’

국제적인 인쇄와 포장을 지향하는 전사적인 의지를 상호에서부터 담아내고 있는 (주)아이팩은 4개월여 전 부임한 오일호 사장의 경영방침인 ‘도전·신뢰·정보화’의 실현을 통해 젊고 힘있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공장 내부의 작업환경이 매우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 (주)아이팩 안산공장 전경



◀ (주)아이팩에서 생산하는 식품포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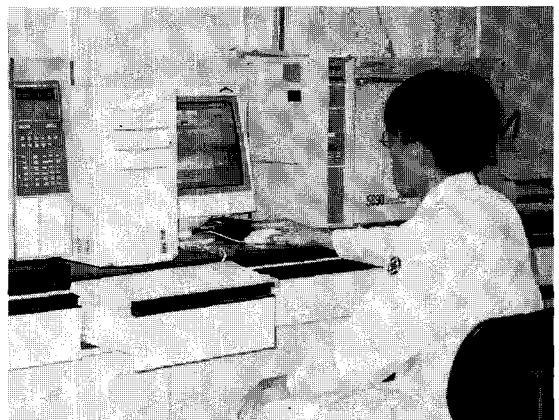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창호 생산2팀장은 “청결한 작업환경과 일사불란한 정리정돈이 불량률을 줄이고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주)아이팩 생산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대신하기도 했다.

ISO 9002 인증을 통해 외적인 작업환경의 틀을 갖춘 (주)아이팩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작업환경의 쾌적함이 더욱 신뢰를 갖게 하는 기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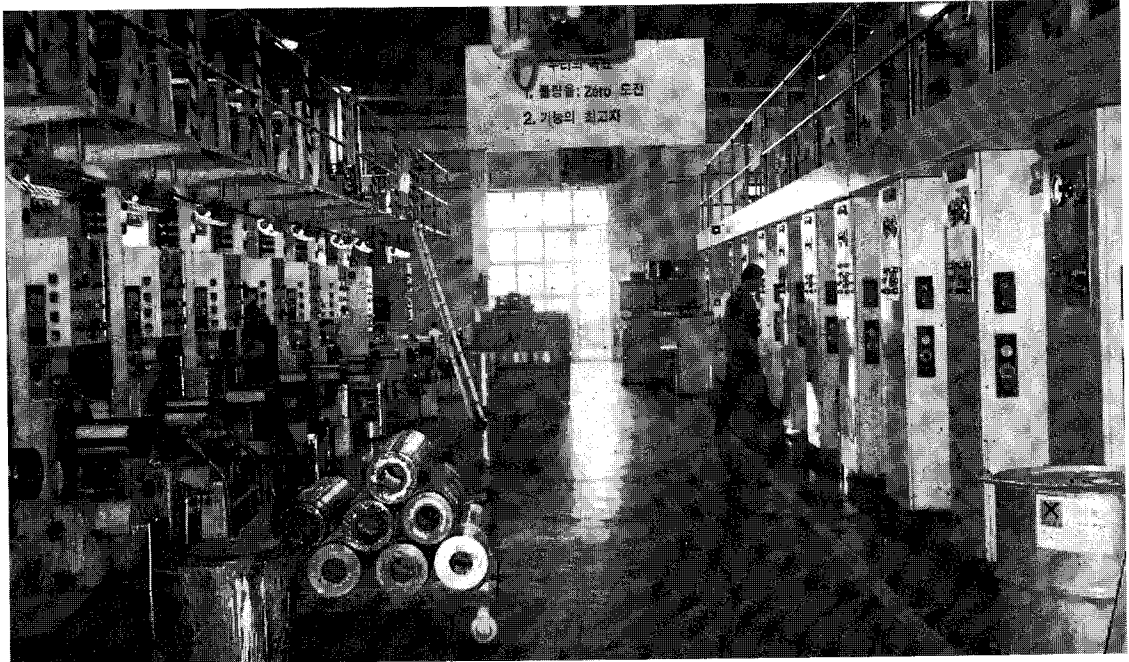
현재 안산에 위치한 제 1공장에서 그라비아인쇄를 통한 식품포장지를 생산하고, 전북 익산에 위치한 제 2공장에서는 골판지 박스를 생산하고 있는 (주)아이팩은 내수의 80% 정도를 동양제과(주)와 오리온프리토레이에 공급하고 있는 한편, 15% 생산량을 수출하고 있는 탄탄함을 보이고 있다.

“흔히 제품을 아름답게 싸는 것을 포장문화라 하는데 저희 아이팩은 아름다운, 즉 보기좋은 포

장은 기본이고 제품의 품질까지 보장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의 포장문화를 새롭게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경영지원부 이재춘 부장은 자동 8색 및 9색 그라비아 인쇄기를 비롯, 다각적인 압출라미네이션 가공과 공압출 작업이 가능한 기기를 갖추고, 이에 장인정신을 더해 그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는 (주)아이팩의 신념을 설



▲ (주)아이팩의 연구실은 품질관리 위주의 개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주)아이팩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술선수범하고 있는 기업이다.

명했다.

‘비교되는 품질’이라는 말로 (주)아이팩의 신념을 재차 강조하는 이 부장은 “어차피 기술적으로 평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습니다만 연구실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및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저희 아이팩만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며 (주)아이팩 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을 통한 차별화를 덧붙여 설명했다.

“대표이사의 경영철학과 발맞춰 영업전략에서부터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하는 모습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공유하는데서 우선적인 차별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라는 경영지원부 염일승 팀장은 유저들이 요구하는 품질을 생산하는 기존 영업방식에서 탈피,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영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 유저들에게 제안을 던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주)아이팩의 의지를 내보였다.

현재 일반적인 라미네이팅 필름과 차별화된 가공공정을 통해 신제품 생산 과정에 있기도 한 (주)아이팩은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견고한 틀을 갖추는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차별화된 영업전략과 꾸준한 기술개발로 포장문화의 신기원을 열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주)아이팩의 젊은 외침에 국내 포장업계는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신뢰가 더해질 것을 확신한다. ☐

윤지은 기자